

문재인 “檢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대화록 파고’ 정면돌파 의지 피력 민주 “편파 수사… 국면 전환 꾀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통보받고 응하기로 결정했다.

대화록 공개와 대화록 미이관 사태, 대선 불복 논란 등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쟁점의 중심에 있던 문 의원의로서는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에 출석, ‘대화록 논란의 파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문 의원이 이 역경을 이겨내느냐에 따라 ‘정치인 문재인’의 입지와, 부침을 거듭해 온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 의원의 검찰 출석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 의원은 검찰의 통보를 받은 뒤 당 지도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원장 김성훈)의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 측은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 핵심 인사는 “검찰이 문 의원을 부르려고 했다면 진작 불렀어야 한다”며 “이미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화록 이관 문제와 문 의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의원을 굳이 부르려는 것은 100%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코너에 몰려 있으니 또다시 국면을 전환하려는 꾀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의 문 의원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반발했다. 김관영 수석 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창립심포지엄 참석 후 의원실로 돌아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대화록 실종사건을 전과적합성이 수사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대화

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이토록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 시일 내에 대화록 유출 책임자로 알려진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즉각 소환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득세 영구인하 8·28 소급 적용 당정협의, 정부보전분 7800억 예비비 전액 총당

당정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 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의견이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방세수 보전대책과 관련 된 여야간 이견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향후 11%까지 끌어올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

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은 연간 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 적극적인 지방재정 안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장병만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다만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소급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청의혹 美정부 즉각 사과하라” 진보연대 요구

한국진보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서 국민까지 한국 사회 곳곳을 도청한 의혹이 제기된 미국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일본 등 38개국 주미 대사관과 세계 각국 정상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도청 의혹 대상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또 한국에 있는 도청 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업인 비자발급 절차 3개월→1개월로 단축

朴대통령,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LG-르노사간 친환경 전기차 공동개발 지원

서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협력이 합의하는 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프랑스 공식 방문 마지막날인 이날 취임 후 첫 회담과 오찬을 잇따라 하고 ▲창조경제의 동반자 ▲문화융성의 파트너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후원자로서 프랑스와 한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단계 더 격상시키는 성과도출을 이뤄냈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창조산업에 대한 협력과 관련, 우리 LG화학이 이 회사의 배터

리를 공급받아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간 향후 장거리주행(최고 주행거리 400km)이 가능한 전기차를 공동개발하는 협력 계약을 가까운 시일내 체결하기로 하는 구체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르노 전기차 체력관을 방문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경제간 협력 네트워킹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국 기업인과 취업인턴의 상호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사증(비자)절차 간소화, 즉 내년에 발효하는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 기업인 사증 구비서류 처리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이어 파리의 메테프회관에서 열린 한-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 20분간 프랑스어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 그동안 노력해 왔던 창조경제를 향한 양국의 노력을 하나로 모은다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문화, 기술과 산업이 만나는 창조적 융합을 통해 양국의 창조경제 구현을 이루고 미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양국간 창조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미래 신산업과 문화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세 분야에서 양국 경제인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3일에는 ‘한국드라마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동포 간간담회,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 오르세 미술관 관람 등 주로 문화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한국문화와 세 일즈했다.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4일 밤 전용기편으로 국빈 방문지인 영국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전남복지재단 직원 모집 25~29일 원서 접수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남복지재단이 사무직 6명, 연구직 4명, 단기계약직 1명 등 모두 11명의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광주와 전남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 넘거나 올 1월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소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

전형은 서류심사, 필기, 면접을 거쳐 진행되며 필검은 논술시험으로, 사무직원은 일반상식 기본과목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중 택일한다.

채용 조건은 계약직(1년)으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봉 제비 공무원 4~9급 수준이다. 오는 25부터 5일간 재단 사무실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전남도가 기본재산 182억 원을 출연,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사업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문의 061-286-88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대 출신 공직 입문 길 넓어진다 안행부, 내년부터 채용목표제 확대

지방대학 출신과 저소득층 인재에게 공직 입문의 길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공직 사회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지역인재·여성·장애·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의 채용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과 내후년에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합격자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 비율이 예초 합격 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하면 적용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추가합격선을,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인원은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늘린다.

아울러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은 2013년 90명에서 2014년 100명, 2017년에는 120명 이상으로 늘려 밝고 지역인재 9급 공무원도 2013년 120명에서 점차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 지방인재 선발제는 최종합격이 서울을 뺀 지역 출신 인재에 적용되며, 지역인재 선발제는 서울을 포함하되 한 지역에서 10% 이상 합격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안행부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나센터 또는 고충센터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수험준비 지원을 위해 시험일정을 3~4개월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 (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중
-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세하동공장 대지1,499㎡,건평234㎡ 6억8천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5천),직영 월천만수입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예식장건물 65억(병원,교회등 다목적이용 가능)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신창동 전(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
- * 세하동 답(자연녹지) 5,500㎡ 매6억6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9천5백만

기타

- * 광산구 본덕동 주유소 매 7억(보 1억,월 350만)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권 9억6천
- 함평군 영암 칠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원흥·디세대저택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흥빌딩을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육등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정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주택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창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수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옐도리도 가는 길, 비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부유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시설의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무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다)옥션컨설팅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1319㎡ 건평297㎡ 감정가2억3천만 최저가9천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자운초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1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방어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